

“대불산단 고용촉진특구 지정” 각계 잇단 촉구

강성희 전남도의원 건의안 본회의 제출 조선업 장기불황 근로자 고용불안 가속

대불국가산업단지를 ‘고용촉진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경남 통영시를 ‘고용특구’로 지정한 데 대한 환영성 차원을 넘어 국가 기간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업종이 밝힌 ‘대불산단 근로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고용촉진특별구 지정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대불산단은 입주업체의 73%가 선박관련 업체로 구성된 국내 최대의 조선기자재 집적화 단지로, 부산과 거제 등 다른 지역 중대형 조선소의 선박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핵심부품

들을 생산하는 사업구조로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의 ‘고용특구’ 지정기준(지표)은 시·군·구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특구산업이 위기를 겪더라도 여타 산업분야 때문에 기준 충족이 어려운 모순을 안고 있다. 강 의원은 “대불산단이 소재한 영암군과 근로자들의 생활근거지인 목포시가 같이 모순된 지표로 인해 지원혜택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며 “지정기준이 바뀌어야 지역 근로자들의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불산단의 대표 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011년 4조8287

억원의 매출액이 지난해 4조2318억원으로 1년 만에 6000억 원이 감소했고, 수주물량도 2011년 37척, 87만4000t에서 지난해 16척, 40만1000t으로 57%나 감소하는 등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다. <광주일보 2월20일자 9면> 대불산단도 지난 2011년 19개사, 2011년 24개사, 2012년 14개 업체가 휴·폐업할 정도로 불황에 시달리고 있으며 조선업종 1만1000여명의 근로자 가운데 하청 근로자가 8000명에 이를 정도로 고용불안이 심화한 상황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달 19일 같은 내용의 ‘고용촉진특별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고용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사업주가 피보탈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유급휴직수당, 훈련참가자 임금, 인력재배치자 임금의 100분의 90을 1명당 1일 5만원 이내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회적 일자리 등의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원하고,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고용특구’ 건의안은 21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스마트폰으로 16개 은행 금융거래

오늘부터 ‘뱅크월렛’ 서비스

이제부터는 플라스틱 형태의 현금카드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전국의 현금출금기(CD/ATM)에서 금융거래는 물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결제원과 국내 16개 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발급하는 ‘현금카드’와 충전형 선불카드인 ‘뱅크머니’를 스마트폰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는 은행 공동의 스마트폰 지갑 ‘뱅크월렛’ 서비스를 19일 시작한다. 서비스 대상은 1차적으로 본인 명의의 된 갤럭시 S2, S3 등 NFC(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 모듈, 가까운

거리에서 단말기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을 보유한 SK텔레콤 고객이다. 이용 희망자는 은행공동의 스마트폰 지갑 앱인 ‘뱅크월렛’을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뱅크월렛 발급 전용 웹사이트(www.bankwallet.co.kr)에서 거래은행의 현금카드와 뱅크머니를 신청해 스마트폰에 내려받으면 된다. 16개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외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6월 이후 이용 가능) 등이다. 산업은행과 광주은행은 서비스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전남농협 연합사업단이 지난 14일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해 사업계획과 상품 출하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통합마케팅을 펼쳤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전남농협 수도권 통합 마케팅 대표농산물 70억원 판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중수)는 소비자 유통시장 선점을 통한 전남농산물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농협 정과사업단과 가락시장, 양재유통센터 등을 방문해 올 전남농협 연합사업단 사업계획 및 상품별 출하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수도권 통합마케팅을 14~15일 실시했다. 이번 수도권 통합마케팅을 통해 전남농협 연합사업단 직원 12명은 감자, 매실, 양파, 마늘 등을 소비자 바이어 대상으로 마케팅을 전개해 70여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올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농협은 급변하는 유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 시장 확대를 위해 시군연합사업단을 지난해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올 전남농협 연합사업 판매액을 지난해 보다 600억원이 증가한 2000억원을 추진하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박중수 전남농협 본부장은 “농산물의 최대 소비자인 수도권에 지속적인 전남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지역농산물을 책임판매하는 전남농협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소 올 연봉 3.5% 인상

올해 중소기업의 연봉 인상이 평균 3.5%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11~18일 중소기업 직장인 1천35명을 조사한 결과 올해 연봉 협상을 마친 직장인은 53.3%였으며 이들의 연봉 인상은 평균 3.5%였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인상이 평균 4.3%였던 것과 비교하면 0.8%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연봉 협상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직장인은 64.4%로 만족스럽다고 답한(35.6%)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연봉 불만으로 이직을 계획 중이라고 답한 직장인도 27.1%에 달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기아자동차가 19일부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직무 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K’, ‘I’, ‘A’인재군으로 구분, 맞춤형 면접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자격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013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로 해외여행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HKAT), 1차 면접, 2차 면접(영어면접 포함), 신체검사의 순서로 진행된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분석적 사고와 뛰어난 통찰력을 갖춘 인재를 요하는 상품·마케팅 부문은 ‘K(Kreative) 인재군’으로, 요구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개인 및 집단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창의 면접’을 실시한다.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며 책임감이 충만한 인재를 요하는 생산기술, 생산공장, 품질, 구매 부문은 ‘I(Interactive) 인재군’으로, 이 직무의 지원자들은 공장을 견학한 후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현장 면접’을 실시한다.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과감한 추진력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인재를 요하는 경영지원, 해외영업, 국내영업, 재정 부문 등은 ‘A(Adventurous) 인재군’으로, 이들은 직무별 사례를 주고 문제 해결 능력과 업무 추진력 등을 평가하는 개인 프레젠테이션과 집단 토론을 실시한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1968.18 (-18.32)	541.09 (-13.72)	2.59% (-0.02)	1114.60원 (+4.30)



다문화 가정 아동 책 나누드립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책 나누기 캠페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신학기를 맞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와 함께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위한 책 나누기 캠페인’을 오는 31일까지 전개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8일 “책을 통해 한계를 벗어나 미래를 꿈꾸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백화점 8층 사은품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고객이 집에 있는 헌책이나 버려지 아까운 책 3권을 가져오면 새 책 1권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수험서, 교과서, 문제집, 잡지, 단체 홍보물 도서는 받지 않는다. 백화점은 고객이 기부한 책 가운데 1000여권을 선정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를 통해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류민열 롯데백화점 광주지역장은 “책의 힘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해주려는 취지에 맞게 많은 고객이 관심을 두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비은행권 가계대출 가파른 증가

최근 5년새 74% 급증...증가세 은행권 2.7배

저축은행, 신탁,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 대출이 최근 5년 새 은행 가계 대출보다 3배 가까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영향으로 전체 가계대출 잔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007년 12월 기준 110조4130억원에서 2013년 1월 192조4010억원으로 74%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은행의 가계대출은 363조6810억원에서 463조8420억원으로 27.5% 증가한 데 비해 2.7배나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전체 가계 대출에서 비은행 예금취급 기관의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잔액 기준 2007년 12월 474조940억

원이었으나 올해 1월엔 656조2430억원으로 집계돼 38.4% 늘어났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 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2월 23.3%에서 올해 1월 29.3%로 늘어났다. 개별 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2007년 12월 16조1300억원에서 올해 1월 37조1670억원으로 지난 5년 1개월 동안 13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조조정을 겪은 상호저축은행은 2007년 12월 6조7650억원에서 2011년 12월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1810억원까지 늘었다가 2012년 12월 8조851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1월 9조2510억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 담보 대출, 기타 대출(마이네스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두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5일간 백두산악이 드리는 최고의 봄맞이 선물

의류전품목! 무조건 50%

주)백두산악 무등산점 062-236-1187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